

“야구부, 조계종도 돌보이게 했다”



지난 12일 동국대 야구부 훈련장을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불꽃시구’로 선수단을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동국대 총장후보 12월4일 확정

추천위원장에 정안스님

동국대가 지난 11일 학교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에 제18대 총장 선임을 위한 초빙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 오후5시까지 지원을 받아, 이 가운데 3~5명을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동국대 총추위는 10일 교내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스님을 임명하고, 향후 일정과 시행세칙을 논의했다. 28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인원, 선발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며, 12월4일 3차 회의에서 소견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거쳐 투표로 최종 후보추천자를 확정한다. 총추위에는 해일스님 등 조계종 추천위원 4명을 비롯해 김상인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사회 저명 인사 3명, 황순일 교수 등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4명, 대학원생대표 1명, 학생대표 1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홍다영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동국대 연습현장 방문 2년간 7관왕 첫 기록… ‘불꽃시구’로 응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7년 만에 대학야구 4관왕을 달성한 동국대 야구부 훈련장을 방문해 감독과 선수단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이견열 감독과 20여명의 선수들을 만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 “최고의 성적을 거둬주어 정말 대단함을 느낀다”고 치하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열심히 훈련한 결과 동국대와 조계종을 돌보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프로리그에 진출해서도 학교와 야구부를 빛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선수들은 합장 3배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앞서 동국대 야구부는 지난 3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일반부 결승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해 인천 대표로 나온 인하대를 8대1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날 우승으로 동국대는 대학야구 사상 37년 만에 한 시즌 전국대회 4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해 3관왕에 이어 올해 4관왕에 오르면서 2년간 7관왕을 달성한 첫 번째 대학으로 기록됐다.

이날 이견열 감독은 “총장님을 배

로 응원해 주셔서 더 나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이 감독은 2012년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2년간 7번의 우승을 일궈냈다. 이 감독은 82학번으로 1980년대 동국대 야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던진 공이 정확하게 포수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격려방문에는 동국대 정경원장 범타스님, 김희욱 총장, 정창근 경영부총장, 안재봉 대학 스포츠실장, 윤재웅 홍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

불교미술대전 기획전…11월26일 개막

불교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대회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佛美展)이 올해는 기획전으로 찾아간다. 조계종 총무원에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3층에서 불미전 기획전을 개막한다.

올해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통을 품고 현대 변화의 흐름에 함께 발맞춰 불교미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획전은 불미전 역대 수상 작가와 불교적 사상과 색채를 지닌 작가들 초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획전은 모두 27명의 작가들이 48점의 작품으로 참석한다. 불미전 수상자 22명과 초대작가 5명이 이번 기획전의 주인공들이다.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는 “기획전을 통해 전통과 현대로 이원화된 불교미술을 소통하게 하고 지금 시대의 불교미술 화풍을 형성하고 정립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미전 기획전은 11월26일부터 12월9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2·3층에서 이어진다. 불미전은 1970년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다. 매년 공모전 방식으로 시행해오던 불미전은 지난 2012년 공

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시행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불미전 출신 작가 육성과 불교미술계 진흥 방법을 모색해 굳건한 불교미술의 장을 만들어가자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다음은 참여 작가 명단. △불미전 역대 수상자(22명)=김광열, 김성기, 류종상, 민승기, 이인호, 이재순, 이진형, 조병현, 허길량(이상 조각). 김의식, 손연철, 신진환, 이수예, 일오스님, 전연호(이상 회화). 김승렬, 명천스님, 안명선, 오해균, 이경숙, 이지연, 정장민(이상 공예).

△불교미술 권역 초대작가(5명)=김양동, 김영희, 성각스님, 송근영, 최중태.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11월 12일 총무회의)

 성원스님 강화 선원사	 묘순스님 서울 삼선포교원	 단호스님 평택 약사사	 금선스님 용인 대각사	 영원스님 보은 만세암	 효상스님 대구 선흥사
 유광스님 고령 관음사	 해관스님 영덕 유금사	 도정스님 청원 금륜사	 구과스님 울산 죽림정사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 첫 재임 교육원장 현승스님



“부처님 지혜와 자비 널리 퍼는 승가교육 구현”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스님 <사진>이 1995년 교육원 별원 후 처음으로 재임했다. 현승스님은 지난 11일 개원한 중앙종회 200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교육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원장 스님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수학교육을 신선했고, 삼장원 열 불원 등 수행기관의 확대 등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연수교육을 안착시키고, 법계별 연수교육까지 도입하는 등 승가교육의 틀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일벌레, 일종독이란 소리도 들었지만, 초기 설정했던 계획들은 어지간히 추진했다”고 자평할 정도다.

현승스님은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모토로 추진한 다양한 변화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난 시간 제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 내용을 채울 때임을 피력했다. “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미진한 점도 있었다”는 스님은 “엄격한 자체평가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교육 개혁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덮어두고 5년 전 교육원장 소임을 맡을 때의 자세로 임할 것”이란 스님은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스님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기를 시작하며 3개월 가량 동안 결재를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승가교육의 방향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승가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1기는 제도구축 단계 이젠 내용을 채울 때

엄격한 자체평가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승가교육의 목표”라며 “인재를 배출해 한국불교가 변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5년간 종단의 승가교육을 책임질 교육원장 스님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스님의 모습, 불교의 역할을 토대로 승가교육의 내용을 채워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이래 현승스님은 먼저 승가교육을 행자-기본-전문-특수-연수교육 등으로 단계별로 정착시켰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기관에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재를 한글화했고, 달라진 교과에 맞는 강의계획안도 마련했다. 국제불교학교와 같은 특

수행도량 보리동산 홍원사 화엄경산림 큰스님 초청법회 및 화엄경 사경

서울 홍원사(회주 동주스님)는 오는 11월 9일부터 ‘화엄경산림 큰스님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화엄경산림법회는 화엄경 입법제품의 선재동자 구법기를 중심으로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을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배우게 된다.

법회는 11월 9일 전 포교원장 해충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6일 중범스님, 23일 각성스님의 법문이 이어지고, 11월 30일 회향 대법회가 열린다. 법회기간 중에는 화엄신중예참문에 따른 참회발원과 사경수행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홍원사는 이번 화엄산림기간 동안 선재동자가 발심하여 53선지식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 속에서

선지식 스승들의 고구정녕하신 법문과 선재동자의 간절한 구도 자세를 본받고자 주지 성오 스님이 3년여 기간 동안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 <화엄경 입법제품 - 53선지식을 찾아서>를 일차일배의 정성으로 사경하는 원력도 세웠다.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구도수행이 절실한 이때 선재동자 같이 선지식을 친견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깨달음을 구하자는 염원으로 방대한 화엄경 중 입법제품을 사경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엄경 입법제품 사경은 우리나라 사경유품 중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통일신라 황룡사 연기법사가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한<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재현하여 나라의 번영과 만민의 안락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도 함께하고 있다.

- 화엄경 사경교재 구입방법 :
교재 내용 ▼
 - 화엄경 입법제품
 - 화엄신중예참 법요집
 - 화엄경사경노트 5권
- 사경교재 세트 한 벌 : 10만원
- 사경노트 5권 : 5만원
(우편발송시 배송비 별도)